

강제 격리에 단종 수술... 죽어서라도 나가고 싶은 섬



지난 1916년 문을 연 국립소록도병원이 오는 17일로 100주년을 맞는다. 일제가 한센인 관리 목적으로 세운 소록도자혜의원이 모태다. 총독부는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강제로 단종수술을 했다. 지금은 치유의 공간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죽어서라도 나가고 싶은 소록도’였다. 해방 후에도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한센인의 섬, 소록도 100년을 돌아봤다.

심아픔-피눈물의 100년 역사

1916년 한센인 첫 수용

해방후에도 인권유린 지속

오마도 간척 땅·눈물 수탈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람의 꿈을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 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하여 누워 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면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리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이는 일제강점기 제4대 수호 원장 시절 그의 명을 거역한 벌로 감금실에 갇혔다 풀려나면서 단종수술을 받은 이동의 ‘단종대’라는 시(詩)이다. 당시 총독부의 지휘 아래 한센인 강제 격리, 강제 절멸 정책을 비롯한 단종·낙태의 비인도적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소록도 내 이른바 한센인 거주지역인 ‘2번지’(1번지는 직원·민간인거주지대)에서 만난 한센인 정보(78)씨는 “일제강점기 때 소록도로 왔는데, 온종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며 “노역 중 다친 상처와 동상이 악화하면서 손가락이 하나둘 잘려나갔고 두 다리도 못쓰게 된 동료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일제는 1916년 자혜의원을 설립해 한센인들을 이곳 소록도에 격리했다. 이후 자혜의원은 소록도 경생원(1934), 경생원

(1951), 소록도 경생원(1957), 국립소록도병원(1960), 국립나병원(1968), 국립소록도병원(1982) 등 일곱 차례에 걸쳐 명칭을 변경하는 곡절을 겪어 왔다.

일제 침략기에 단행된 한센인 격리 조치는 학대와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다. 가장 극명하게 소록도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감시실과 감금실이다. 감시실에서는 단종(斷種)수술이 이뤄졌다. 이는 일제강점기 악습으로, 한센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단종 수술은 이어졌다.

한센인 윤모(여·77)씨는 지난 1953년 소록도병원에 입원했다. 19살이던 윤씨는 한센인 남편과 결혼하려다 단종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섬 밖으로 남몰래 도망갔다. 이후 윤씨는 딸을 낳았지만 한센병과 무관한 딸 아이는 학창시절 내내 ‘문둥이 새끼’라는 인격모독적인 놀림을 받아야 했다.

윤씨는 “차라리(단종수술을 하고) 소록도에서 남편하고 돌아서만 살 걸 그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센병은 약물치료가 가능한 전염병으로, 유전과는 무관하지만 정부는 한센인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을 이어갔다. 특히 정치권에선 이들 한센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다.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배경인 오마도 간척공사가 대표적이다. 이 간척공사는 당시 육군대령 출신 병원에 의해 주도됐고 2000명의 한센인이 참여했다.

이 같이 일제시대부터 오늘 날까지 온 국민이 공모해 한센인들의 인권을 탄압해



지난 28일 국립소록도병원 내 옛 감금실(좌)과 감시실의 모습. 이들 장소는 한센인의 피맺힌 역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온 역사가 100년에 이른다.

소록도엔 ‘모집’(1930년대 병원 확장 당시 강제 수용), ‘무독지대’(無毒地帶·직원 거주지역), ‘유독지대’(有毒地帶·원생거주지역), ‘문서’(과거 한센인 환자를 비하해 문둥이로 부르던 비속어), 가릿대(입원 환자 진료기록카드), ‘사회, S도’(사회는 섬밖의 일반 사람이 사는 곳을 사회라고 하며 소록도는 영문 첫 자를 따서 S도) 등 한센인들의 언어가 있다. 이들 단어는 한센인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지 대변해 주고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는 “남도의 아름다운 섬 소록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기억이 사라져 가듯이 소록도에 감금돼 있던 한센인들의 고통의 역사는 외부와 단절된 채 갇혀 있다”며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피로 얼룩져 있는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절대 잊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 6파전... 친문 없어

강창일·이상민·노웅래·민병두·우상호·우원식 4일 경선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이 6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더민주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4선(20대 국회 기준)의 강창일·이상민 의원(가나다순)과 3선인 노웅래·민병두·우상호·우원식 의원 등 6명이 등록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우상호·우원식 의원은 범주류로 꼽힌다. 우상호 의원은 86(80년대 학번·60년 대생) 그룹 대표주자이며, 우원식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로서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이상민·노웅래·민병두 의원은 비주류로 분류된다.

지역적으로는 우상호·우원식·노웅래·민병두 의원이 수도권, 강창일 의원은 제주, 이상민 의원은 충청 출신이다. 애초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10명이 넘는 인사가 출마를 검토하는 등 후보가 난립했으나 일부 후보가 뜻을 접으면서 교통정리가 됐다.

홍영표 의원이 고심 끝에 불출마함에 따라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직계 후보는 없으며, 4선의 변재일 안민석 의원도 막판 고심 끝에 불출마했다.

이번 원내대표는 제1당으로서 20대 개원국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노련한 협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돼 저마다 박 의원 맞수로서 적임자를 자임하고 있다.

직계 후보가 없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모두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당내 최대 계파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굳힌 친노·친문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으며, 일부 후보 간 합종연횡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초선의 선택도 주목된다.

더민주는 오는 4일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정견발표회를 개최한 뒤 오후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재적(123명)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종인 대표 등 더민주 지도부 오늘 목표 민심청취

대불산단 조선업체 등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사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일 목표를 찾아 대불산단 기업체 방문, 총선 출마자 및 단체장 간담회 등을 갖고 호남 민심을 청취한다.

1일 더민주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2일 오전 전주를 방문한 후 목포로 이동, 오후 4시30분께 대불산단 조선관련 업체를 방문, 관련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



회를 갖는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수주단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체에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5시30분부터 무안 남악읍의 한 식당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계호 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등의 뒷받침을 약속할 방침이다.

이어 총선 출마자 및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뒷받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일정에는 김 대표와 양승조, 이종걸, 진영 비대위원과 이언주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전대 연기론' 중진회동도 결론 못내 조속 개최·연기 의견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결론 짓지 못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연말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전대 연기론’과 최대한 빨리 전대를 열어 비대위 체제를 끝내자는 ‘조기전대론’이 맞서서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4선 이상(20대 국회 기준)

중진들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전대 연기론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지만 단일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중진모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대로(전대를) 하자는 주장과 연기하자는 주장이 거의 반반씩 나뉘었다”며 “전대 시기를 언제로 할지의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진회동을 통해 전대 연기론 논란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찬반 양론으로 갈려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함에 따라 마찰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전대 개최 시기 문제는 더민주가 오는 3일 예정된 국회의원 당선인-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체코 - 프라하

① 커플당 20만 마일리지 제공

전통 맥주 스파 무료 포함

클래식 프라하/체스키크롬로프 7일

EEW301_OKM 2,180,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부피르 호텔 (시내 4성급)
- 🕒 요일 : 매주 일/월
- ✈️ 항공 : 체코 항공(OK항공)
- 🎁 특전 : 미팅/샌딩 서비스
- 🍷 카를로비바리 기념 커플잔
- 🍴 특식 : 로브코비츠 궁 코스 요리

② SM면세점 카드 3만원 권(커플당 1장)

전통 맥주 스파 + 고성호텔 숙박

클래식 프라하/비엔나 8일

EEW302_AYM 2,521,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부피르 호텔 (시내 4성급)
- 🕒 요일 : 매주 일/월
- ✈️ 항공 : 핀에어(AY항공)
- 🎁 특전 : 미팅/샌딩 서비스
- 🎭 비엔나 음악회/ 쉐부룬 궁전 관람
- 🍴 특식 : 로브코비츠 궁 코스 요리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TALK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친구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친구 맺기
-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 ID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